



기도 응답

필리핀 북부 루존(Luzon) 섬 고산지대에 사는 발랑가오 사람들은 테클라의 아버지가 귀신들린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 다섯이 죽어나가자 테클라라도 살리려고 자기 영혼을 귀신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테클라 역시 신내림을 받아야 했지만, 도리어 가끔씩 마을에 찾아와 말씀을 전하는 순회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국에서 성경번역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조앤 세틀러가 마을에 왔을 때, 테클라가 언어조력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번은 조앤 세틀러가 끔찍한 비행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고를 통해 도리어 테클라와 발랑가오 사람들을 복주셨습니다.

테클라는 마지막 언덕을 넘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저희를 비난하는 사람들 말대로 우리의 천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면, 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주아미(조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길 원하신다면, 주아미가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수 15-17	수 18-19	수 20-21	수 22-24	삿 1-3	삿 4-5	삿 6-8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주아미를 살려 주시겠다는 증거를 주세요... 제가 '주아미' 하고 불렀을 때, '테클라'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주아미를 살려주실 줄 믿었습니다."

내(조앤)가 눕혀진 방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죽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려는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테클라가 방안으로 들어오는 걸 알았습니다. "주아미, 주아미! "

"테클라, 테클라, 괜찮아. 괜찮을 거야! " 소리를 내뿜을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클라는 숨을 죽여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아미가 살아난다, 주아미는 살 거야! "

테클라의 말에 아랑곳 없이 사람들은 귀신 같이 피범벅이 된 몸뚱이에 징그럽게 불거져 나온 내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테클라, 이미 죽은 거나 다름 없어... 겨우 숨만 달랑 붙어 있잖아."

테클라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괜찮을꺼야 난 알아" 테클라는 밤새 나를 지켰습니다. (『조앤 세틀러 스토리, pp. 26~27』)

테클라뿐 아니라 다른 발랑가오 신자들도 밤새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아미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성경번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성경번역을 마치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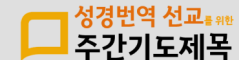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조앤에게 아주 "극단적인 날줄과 씨줄로" 엮어주신 밤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중에, 조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조앤은 발랑가오 성도들이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발랑가오 성도들은 그날 밤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테클라도 마침내 자신과 또한 성경번역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만 기도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선교사들과 새로 믿게 되는 선교지의 신자들이 동일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우리가 말씀드릴 때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민족 사람들이 마음의 언어로 번역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구하는 성경번역 선교사들과 현지인 번역 사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Answered Prayers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Tekla's father was recognized as the descendant of a spirit in the Balangaos, one of the small language groups located in the high mountain areas of Luzon island, Philippines. In fact, he sold out his soul to demons to spare his daughter from death when his other five children died except Tekla. She was also supposed to accept (a) spirit(s), or become demon-possessed, but she refused. Instead, she tried to be a believer when she heard the message through an itinerant priest who visited and preached in her village from time to time.

God finally answered her prayer and sent a missionary, a Bible translator from the United States. It was no surprise that she became the language helper when Joanne Shetler came to live among the Balangaos. Once Joanne was in a terrible flight accident but this turned out to be a great blessing to Tekla and other Balangaos in the long run.

Before the last steep ascent, Tekla prayed, "Oh, holy God, it's up to you. Maybe those people are right and we have desecrated your holy

Mar 12	Mar 13	Mar 14	Mar 15	Mar 16	Mar 17	Mar 18
Jos 15-17	Jos 18-19	Jos 20-21	Jos 22-24	Jud 1-3	Jud 4-5	Jud 6-8

Word by putting it into our lowly language. And if so, then we accept our punishment and Juami (Joanne) will die. But God, if that's not true, if you really do want your Word in our language, then let her live-don't let her die. But God I need a sign -I need to know...if I call out 'Juami' and she answers back, 'Tekla' then I'll know she will live."

The room I was in was packed with people. They crowded around me with their last gift-their presence when I died. Through the commotion, I heard Tekla burst into the room, "Juami!, Juami!"

"Tekla, Tekla, it's OK. I'll be OK." My voice was weak; I couldn't get enough air to push it out.

Tekla turned to the quietly weeping crowd and said, "She'll live! She'll live!"

Spurning her words, they looked down at me, a ghostly pile of bloodied cement and grotesquely bulging eyes. "Can't you see she's already dead-just her breath is left."

"God will keep her alive," Tekla said. "She'll be all right, I know." And Tekla took over for the night.

It was not only Tekla but other Balangao Christians who stayed at Joanne's bedside through the night and prayed. "Lord, don't let her die. The Book's not done yet. Just let her live. The Book's not done yet." (*And the Word Came with Power*, pp. 15~16)

Joanne confessed that God would "weave these two extremes", her severe pain out of the accident and the indescribable joy for the answered prayer together. She had prayed that Balangao Christians could learn to pray with intensity. Finally, Tekla could have God's confirmation on herself and her commitment to the Bible translation ministries. And other Balangao Christians showed their yearning for God's Word which was expressed by their fervent prayers that night. It was not only Gideon but so many other missionaries and new believers have experienced the same answered prayers.



Week 11 Prayer: Dear Lord, thank you for hearing us when we talk to you. Please hear our missionaries and national workers as they yearn for their people to see and experience Your love and power through Your Word, translated into their heart language and the Christ-like lives of the missionaries and national workers.